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7일 목요일 음 10월 11일 (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해돋이 06:57	달뜨기 15:10
해질 17:37	달지기 01:46
만조 07:47	간조 02:02
20:08	13:47

주간예보

생활·안전 기상정보

내일	맑음	12/16°C
모레	맑음	13/17°C

식독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美 치킨체인 인증차별적 행태로 여론 못매

백인 위해 흑인 자리 옮기라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업체인 '버펄로 와일드 윙스'(Buffalo Wild Wings·BWW)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네이퍼빌의 BWW 지점은 백인 단골손님 1명을 위해 흑인 손님 18명에게 좌석 이동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스틴 바알의 일행은 지난 2일 저녁, 생일파티를 위해 집 인근 BWW 네이퍼빌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다. 성인 6명과 어린이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자리를 잡고 주문을 시작했으나 곧 직원들로부터 좌석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다.

좌석 배치 담당인 한 흑인 남성 직원은 "(요좌석의) 백인 단골손님이 흑인들이 근처에 와서 앉는 걸 원하지



회견하는 제스틴 바알과 부인 메리.

않는다"고 바알 일행에게 설명했다.

매니저급 직원 둘이 다시 와서 "일어나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바알 일행은 매장을 나왔다.

이 사실을 바알의 아내가 SNS에 올리면서 전국적인 분노를 촉발했다. 바알의 일행은 이날 회견을 열고 "차별과 편견 보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BWW 본사는 수습에 나서 "관련 직원과 매니저들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백인 손님에 대해 '전국 매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김완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 빨간 섬하르방이 있다. 박물관 정문에 서 있는 도지정 문화재인 돌하르방과는 다르게 쇠를 이용해 만들었다. 돌하르방도 아니고 쇠하르방도 아니다. 사진 배경으로 으름이지만 그냥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서 있게 된 사연이 있다. 수년전 1998년과 2001년에 제주시 오라관광지에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열린 적이 있었다. 당시 제주 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으나, 축제의 지속성, 정체성, 접근성 등의 논란 그리고 적자 행진에 밀려 더 이상 진행되

박물관 정원에서 숨 쉬는 소중한 것들

지 못했다. 그 이후 2017년에 다시 축제 재현을 시도하다가, 도민공감대 및 참신성 부재, 막대한 예산, 기존 축제들과 차별성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 출신 한명섭(1939~2004) 작가의 작품인 섬하르방은 두 번째 축제 때 공모에 당선됐으며, 사방 어느 쪽으로 봐도 돌하르방의 형상을 띄도록 해 마치 움직이는 듯 신비감을 준다. 섬문화축제가 중단되면서, 축제장 입구에 설치됐던 섬하르방은 그야말로 외로운 신세로 전락했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물로 변신할 뻔했다. 이전 비용과 유지관리로 육신각신하다가, 결국 2005년에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입장권을 들고 박물관 마당으로 걸어오다 보면, 산지전을 낀 뽕나무 정자 옆에 또 다른 조형물이 있다. 양중해(1927~2007) 시인의 '해녀들의 노래' 시비석을 보다보면 파도소

리와 숨비소리가 저절로 들린다. 꽃 같은 청춘을 마다하고, 소중이를 입고 바다 속을 헤매며 가족과 고향을 책임져야 했던 해녀들의 가난한 시절을 더듬어 보게 한다. 사람들이 뽕나무 정자 아래에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마치 해녀들이 불턱에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외에 박물관 마당과 정원에는 직박구리가 늘 찾는 물허벅상을 비롯해 웅덩이 고인돌, 정주석과 정남, 포토존 돌하르방, 수놓음석, 할망당, 돛통시, 초향, 선정비 등 제주사람들의 일생과 제주인의 정신을 담은 소중한 유물이 많다. 또한 화산탄, 압수 용암석, 기념식수, 재래감귤, 담쟁이와 모람, 야생화 등 제주의 자연과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신비한 자연 자원들도 가득하다. 특히 박물관 정원을 빛내는 야생화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웃음과 기쁨을 준다. 그

도 그럴 것이 겨울 동백꽃과 수선화가 지고나면 벚꽃, 녹나무꽃, 문주란꽃, 배롱나무꽃 그리고 11월에 접어들면서 박물관은 노란 털머위꽃의 향기로 정신이 아찔하다.

박물관 정원은 좀 더 여유를 갖고 둘러보면, 진귀한 보물로 가득한 또 다른 풍경이다. 나태주 시인이 예찬한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야 예쁜 풀꽃'처럼 박물관 정원이 그런 공간이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잊고 있을 뿐이다. 늘 태양과 하늘이 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소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물관의 정원은 더 잘 가꾸어야 한다. 섬하르방도, 돌하르방도, 해녀도, 털머위도 그걸 원한다. 운치와 사연 그리고 삶의 기록과 흔적들로 채워진 박물관 정원은 유물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야 한다. 비록 서 있는 위치와 키가 다르지만 섬하르방과 돌하르방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열린마당

관공서도 유튜브로 통(通)해 보자



오수원

제주시 공보실 보도팀장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기입하고 키워드를 찾아봤다. 'Youtube란, 매일 비디오 조회수 1억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라고 한다. 매일 같이 1억회 재생이 된다는 의미이니, 대한민국 국민 1명이 하루 2번씩 시청하는 셈이다.

최근 공무원의 일상을 '술직'과 '젠스'로 담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충주시 김 주무관이 혼자서 번번히 않는 촬영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투박하게 B급 감성으로 만들었지만 누적 조회수 500만, 구독자 6만명,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 이어 2번째라고 한다.

충(주시)TV 인기비결을 묻자 "시정홍보가 목적인 경우에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도 시청자의 흥

미를 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누리꾼 눈높이에 맞춰 가볍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통한다"라고 했다.

제주시에서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시청홍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유튜브 외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등의 SNS 홍보이다. 유튜브 제작 수준은 초보단계이고 인력 및 예산, 장비 등도 열악하다 보니 구독자 수도 9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재미있게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공무원의 특성상 구독자의 시선과 관심을 유지하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도 갖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제주시에서도 직원이 직접 크리에이터 나서서 요즘 세대가 흥미로워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관공서가 유튜브로 통(通)하려면 꾸미거나 정형화된 이미지를 깨는 것이 급선무인 듯하다. 충주시 김 주무관의 1인 미디어처럼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자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다섯 가지 충전에티켓, 다 함께 지켜주세요



김계현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최근 들어 제주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기차 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전기차 충전기이다. 개인용을 제외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만해도 3000여 기가 넘는다.

구축된 충전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충전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점검과 고장수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고장난 충전기와는 별개로 충전기가 정상임에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충전기 앞에 주차가 돼 있거나, 충전이 완료됐지만 이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충전기를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 충전기 앞 주차 행위, 급속 충전기를 1시간 이상 이용하는 행위는 지난해 시행된 일명 '충전 방해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 시설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다.

단속지역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를 위해 충전기 앞을 비워두는 서로의 배려이다.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내연기관 차량은 당연히) 충전기 앞에 주차 하지 않기, 급속충전기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충전하기,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 남기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 이동하기.

다섯가지 충전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전기차 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충전에티켓 확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 흑염소 먹이들이 (1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향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 064.805.5099

T. 064.764.6678